

6차산업의 살아있는 신화, 일본 야마나시현의 기적
소네하라 히사시의 <농촌의 역습>에 이은 두번째 저서

<청년기업가의 탄생> 클라우드 펀딩



<청년기업가의 탄생>_쿠팡컬렉티브, 2015 소네하라 히사시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적극적인 6차산업의 확산을 꾀하고
농촌창업을 넘어 일반 창업의 성공을 돕는 실질적인 제안으로
일본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농촌기업가의 탄생>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클라우드 펀딩 바로가기
www.artbusking.com

<농촌기업가의 탄생> 한국출판기념

소네하라 히사시 토크콘서트



2014 아쇼카 펠로우 소네하라 히사시 토크콘서트

베스트셀러 '농촌의 역습'에 이은 두번째 저작 <농촌기업가의 탄생>

6차산업, 농촌창업을 넘어서는 소셜 비즈니스의 성공사례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일 정



5.8 (금)

울산

10:00~12:00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2층 강당

서울

17:00~19:00

NPO지원센터 대강당

5.9 (토)

전주

10:30~12:30

전북통상진흥원

5.10 (일)

대구

16:00~18:00

콘텐츠코리아랩

*서울 토크쇼는 아쇼카 글로벌 임원
빌 카터와 함께 합니다.



소네하라 히사시



빌카터

- 주최 울산_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서울_아쇼카 한국 전주_전북통상진흥원 대구_소셜임팩트포럼
- 주관 쿵푸컬렉티브 에가오 한국브랜치 ■ 후원 지역활성화LAB 마르텔로
- 문의 070 7862 0909 | 쿵푸 컬렉티브 <https://www.facebook.com/KungFu.Collective>

농촌은 비즈니스 기회(chance)의 보고(寶庫)

첫 번째 저서인 <농촌의 역습>에서 일본의 농촌에는 막대한 잠재자원이 있고,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10조엔의 산업이 창출 될 것이라고 했다. 농촌지역에는 농지, 삼림 등을 비롯해 사용되지 않는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최근에 특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농업의 6차 산업화이다. 또 하나의 붉은 자연에너지 분야이다. 일본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력고정매취제도(電力固定買取制度)가 시작됐다. 태양광발전, 소수력(小水力)발전, 바이오매스(biomass)발전, 지열발전 등 재생가능 에너지전력을 고정가격에 전력회사에서 구입하는 제도다.

이런 발전에 적합한 곳 가운데 많은 곳이 농촌지역에 있다.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사량(日射量)이 많고, 일정한 규모의 넓은 토지가 필요하다. 농촌에는 햇볕이 잘 드는 유희지(遊休地)가 많다. 소수력발전에 있어서도 수많은 하천, 농업용수로가 있다. 바이오매스(biomass)에 있어서도 이용되지 않는 간벌재(間伐材)를 시작으로, 상당량의 미이용자원이 있다. 이 고정매취제도가 시작됨으로써 농촌의 자연에너지사업이 갑자기 각광을 받게 됐다.

이 같은 6차 산업화와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5개의 농촌창업분야가 앞으로 더욱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은 비즈니스 기회(chance)의 보고(寶庫)인 것이다.

농촌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농촌기업가

한편, 이런 상황도 있다. 농촌지역은 어디를 가도 과소(過疎),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에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인적 파워가 크게 부족하다. 고령화가 진행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인재가 부족해져 농촌을 짊어질 새로운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농가청년이었던 어떤 젊은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이 경영하는 농업과는 다른 법인을 세웠다.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해서 6차 산업화, 농촌관광(green tourism)을 하는 단체이다. 지금, 그 법인의 규모는 원래 경영하고 있던 농업보다 훨씬 커졌다.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농촌기업가다. 바로 농촌기업가의 탄생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주의했다.

하나는 농촌창업을 시작해서 궤도에 오르기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해설한다는 점이다. 창업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창업의 절차, 또는 단계별 흐름을 알지 못한다. 또,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사람도, 시작은 좋지만 그 후 궤도에 올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독자가 현재의 위치, 즉, 단계를 참조해서 어떤 점에 주의하며 농촌창업을 추진해가면 좋은가를 알기 쉽게 쓰려고 한다.

두 번째는 이 책은 창업을 다루는 책이지만, 경영전문서에 쓰여있는 것처럼 전문용어, 재무제표 등의 도표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썼다는 점이다. 농촌창업은 저변이 아주 넓다. 저변이 넓다는 것은 앞으로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이 분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기업관계자, 농림어민, 젊은이, 여성, 중장년층, 농촌주민, 도시주민 등이다. 사업규모도 대·중·소, 다양할 것이다.

이 책은 농촌창업을 테마로 해서 창업하는 방법을 쓰고있지만 이런 창업의 법칙은 농촌창업에 국한되지 않고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와 일반 창업에도 참고가 된다.

이 책을 번역출판하는 쿡푸컬렉티브는 소셜임팩트비즈니스와 NPO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모여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와 협동하는 사회와 경제를 위해 출판, 미디어 등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형 조직입니다.

쿡푸컬렉티브와 일본의 NPO법인 ‘에가오쓰나게테’의 소네하라 히사시 대표의 1년여 노력 끝에 <농촌의 역습>이 2013년 3월 3일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어서 2번째 저서 <농촌기업가의 탄생>이 2015년 5월에 한국에서 출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농촌기업가의 탄생>의 한국출판과 소네하라 히사시 대표를 직접 한국으로 모셔서 농촌에서의 창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소네하라 히사시(曽根)

NPO 에가오쓰나게테(えがおつなげて)

대표이사

2014 아쇼카펠로우

1961년 나가노현 출생

내각부 지역활성화 전도사

야마나시현립농업대학교 강사

도쿄 메이지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뮤지션으로서 음악활동에 전념하다 그 후 기획회사를 거쳐 컨설팅 회사에서 4년간 근무 후 독립했다.

금융기관 등의 컨설턴트로 승승장구하던 중 일본의 미래에 위기감을 느끼고 재생 모델을 창출하고자 1995년 도쿄에서 야마나시현(...) 하쿠슈마치(...)로 이주하여 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농촌 출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유의 상상력으로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개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워크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10조엔 규모의 지역 자원 산업 구상' 역시 유년 시절의 직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버려지는 산과 논밭들, 농업인의 고령화로 사라져가는 마을, 늘어나는 빈집, 젊은이들의 취업 걱정, 은퇴 예정자들의 노후 걱정 등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일본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깊이 통찰해 지역과 사회에 숨겨진 자원들을 발굴하고,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재구성해 미래의 성장산업인 6차산업을 건설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셜 코디네이터이다.